

# 전두환 광주 법정에 강제구인할까

### 광주지검 수사검사 직접관여...사자 명예훼손 공소유지 집중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배정...출석 불응 땀 구인장 발부할 수도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23년 만에 5·18 민주항쟁 현장인 광주에서 법의 심판대에 오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7일 광주지검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검찰이 지난 3일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공소 제기)함에 따라 공판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공판부에 사건을 넘기는 대신 수사검사가 재판에 들어가 공소유지까지 담당하는 일)하는 등 공소유지에 집중하고 있다.

광주지법은 우선 무작위 전산배당으로 형사 8단독 재판부에 재판을 배당했으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다만, 현재까지 전 전 대통령이 5·18의 현장인 광주에서 스스로 법정에 설지는 미지수다.

형사사건 피고인인 전 전 대통령은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하지만, 고령이나 건강 등 다양한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광주가 아닌 자신의 연고지인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이송신청서를 접수할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이다.

형사재판의 경우엔 관할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은 물론 검사에게도 법률상 이송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만, 예외도 있다.

형사소송법 15조 '관할 이전의 신청'에 따르면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이 상급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서술한 회고록을 출간

했다가 판매 배포·금지 가져본 신성 등 소송을 당한 이후 '광주는 5·18에 대한 지역 정서가 매우 강하다. 재판 공정성을 위해 지역적 연고가 적은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관할 법원을 광주지법에서 서울 서부지법으로 옮겨달라며 재판부 이송신청서를 낸 전력이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광주지법 재판부가 직권으로 관할지를 옮기지 않는 이상 재판은 광주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앞으로 절차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 지정 등에 나설 방침이다.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들어가면 전 전 대통령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민사나 행정재판에서는 피고의 출석 의무가 없고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지만,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이 의무사항이다.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개정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공판 절차는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모두 진술, 쟁점 정리,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최종변론, 선고 등 순서로 진행되는다.

모든 절차에서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고, 재판장이 공소사실이나 증거에 대해 의견을 묻거나 들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은 꼭 필요하다.

예외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 경미한 사건, 공소기각이 명백한 사건, 피고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인데, 전 전 대통령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조사 과정에서 고령이고 진술할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2차례나 출석에 불응

하고 서면 진술서를 낸 전례로 볼 때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는 별개로 재판부는 절차에 따라 공판기일이 정해지면 피고인에게 이 같은 사실이 담긴 소환장을 보내고,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다시 통지하게 된다.

2회 이상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없는 '결석재판'으로 진행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주거지가 일정해 결석재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전 전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각하고, 고조비오 신부와 5·18 희생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3일 불구속 기소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5·18 추모 리본 물결

5·18민주화운동 제38주년을 10여일 앞둔 7일 국립 5·18민주묘지 주변에 희생자를 기리는 리본이 설치되는 등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미공개 5·18 영상물 38년만에 상영

### 5·18기록관, 내일 문화전당서 대치 상황 등 사료적 가치 높아

미공개 5·18 영상물이 38년 만에 공개 상영된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7일 "아시아 문화원(ACI)과 공동주최로 9일 오후 2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에서 미공개 영상기록물 상영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상은 1980년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지, 국군통합병원과 적십자병원 환자 치료 상황, 전남도청 기자회견 등 광주 일대와 근교를 촬영한 영상기록물이다. 시위대와 계엄군의 대치, 적십자병원의 영안실, 시민결기대회, 전남도지사 기자회견, 브리핑과 수습위원회 면담, 망월동 안장, 27일 이후 광주의 주요 기관과 시민들의 모습이 담겼다.

영상기록물은 16mm 흑백 필름 총 3롤(권)로, 상영시간은 72분이다. 안타깝게 무성으로 소리는 들을 수 없다. 5·18 관련 영

상기록물이 많지 않은 실정에서 이번 영상 기록물 수집은 1980년 광주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5·18기록관은 분석했다.

5·18기록관은 한국영상자료원과 MOU를 체결, 음화필름(네거티브필름)을 현상하고 한달 간 디지털 작업을 거쳐 미공개 영상기록물을 공개했다.

5·18기록관은 지난 2017년 12월 익명의 수집가로부터 5·18영상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확인 작업에 들어가 최근 관련 기록물을 매수한 바 있다. 기록물은 모두 4개로 필름을 디지털로 스캔한 원본 파일, 디지털로 스캔한 파일에 색보정 작업을 한 파일, DCP파일 1개, MOV파일 1개 등이다.

영상은 5월 20일·27일의 금남로 시위대와 계엄군의 대치상황, 적십자병원, 시민들 현열, 영안실(시신), 트럭·버스를 타고 다니는 시민들, 도청 분수대 앞 결기대회, 도지사 기자회견 브리핑과 수습위 면담 장면, 기자단 헬기 탑승, 도청 상공 촬영 장면, 광주 외곽과 시민들, 무기 회수, 도청 주변 정리하는 계엄군, 도청 출근하는 직원 등이 담겨 있다. 5월 28일·6월 1일 영상은 도청 현관 앞 회수된 무기들, 거리 청소, 도로와 기관 앞에서 경계 중인 계엄군, 헬기를 타고 도청을 방문한 소준영 등을 촬영한 것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5·18 왜곡 '황당한 국민청원'

### 필명 김대령 책 바탕 문 대통령까지 겨냥 허위 글 올려

올해로 38주년을 맞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음에도 5월을 꺾어내고 왜곡하는 행태가 더 거세지고 있다.

'5·18 때 희생된 광주시민은 대부분 시민군에 의해 숨졌다. 비상계엄 전국확대의 주요 원인 제공자가 문 대통령'이라고 표현한 서적이 출간돼 유통되고 있다. 심지어 '1980년 5월18일 광주에 투입된 북한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도 진행 중이다.

7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김대령(Daeryeong Kim)을 필명으로 쓰는 익명의 작가가 지난달 12일 자신의 책 '문재인의 5·18 눈물로 뒤집힌 광주사태'(Gwangju Uprising Overthrown by Moon Jae-in's 5.18 Tear)를 마국 인터넷 쇼핑몰 '아미존'에 올렸다.

이 책은 총 10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1~2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3~10장은 5·18민주화운동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사기 탄핵'으로 규정하고, 5·18에 대해서는 사상자 대부분이 시민군들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서적에는 '1980년 5월18일 0시를 기해 발효된 비상계엄 전국확대의 주요 원인 제공자가 문 대통령이다. 그가 인솔한 시위대가 의경을 살해한 살인사건 발생 후로는 다시 경희대에 등교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수백 명의 시민

군들 중 단 한 명도 계엄군이 시민군에게 총을 쏘는 것을 목격한 자가 없었다. 시민군들은 시민군들을 향하여 총을 쏘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 등 허구적인 내용이 적혀 있다.

저자는 이 책뿐 아니라 '역사로서의 5·18' 제목의 책 등을 통해 꾸준히 5·18을 왜곡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지난 6일 김대령의 서적을 근거로 '조국 민청수석(광주사태 때 서울에서 시위 주도한 학생들이 내려왔고, 도대체 시민들이 어떻게 군사무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거냐)'라는 게시글까지 올라와 있다.

청원자는 "폭동 시위 주도자가 누구인 가 했는데 민주화 탈을 쓰고 권력을 잡았던 것들이었다", "전두환이 광주에서 일어난 폭동을 진압 잘했으면 이것은 독재가 아니다"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청원자는 '1980년 5월 18일 광주 현장에서 총 들고 활약하는 북한군 인들과 공작조원들 사진을 대통령 문재인이 직접 보기를 청원한다'는 글을 통해 북한군 투입설을 주장하고 있다.

5·18재단 관계자는 "5·18을 왜곡하고 있는 '김대령'을 수년째 추적해왔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로 추정될 뿐 구체적인 신원은 파악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원을 알고 있는 분들의 제보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공공장 갑질 여성은 이명희" ... 경찰, 피해 진술 확보 입건

조양호 회장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공사에서 관계자들을 손찌검하는 모습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공공장 갑질 영상' 속 여성은 이 이사장이 맞는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공식 확인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 이사장의 각종 갑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4년 5월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증축공사장에서 찍힌 해당 영상에 나오는 관계자들을 최근 불러

조사했고, 그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특히 영상에서 이 이사장에게 어깨를 밀쳐지는 등 수차례 손찌검을 당하는 것으로 나오는 '흰색 안전모를 쓴 여성 작업자' 신원을 파악해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우선 이 이사장을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다음, 수사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 표 못 구한 취객 "비행기에 폭발물" 허위신고했다 철창행



○...50대 취객이 광주공항 비행기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허위 신고했다가 철창행.

○7일 광주광역시경찰에 따르면 서모(59)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 20분께 "운암동에서 지나가는 남성이 마지막 제주행 비행기에 폭발물을 신고 탄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허위로 신고해 1시간 30분간 비행기의 출발이 지연되도록 하고, 탑승객·승무원 등 193명과 경찰·소방·

공군 폭발물처리반 등 출동 인력 100여 명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것.

○경찰은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서씨가 신고 후 핸드폰을 끄고 잠적한 점 등을 감안해 허위 신고로 보고 불집아 구속했는데, 서씨는 경찰에서 "제주도 집으로 가기 위해 해당 비행기의 표를 현장에서 구매하려고 했으나, 만석 것을 들었다"고 허위로 신고해 1시간 30분간 비행기의 출발이 지연되도록 하고, 탑승객·승무원 등 193명과 경찰·소방·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 신축 원룸매매

◎ 전대 정문 2분

◎ 총 4층건물

(원룸 13개, 투룸6개)  
4층(안집)-최고급시설

보7천만 월수익 700만

◆ 매가 : 12억 8천 ◆  
(용 3억5천 가능)

- 1) 산정동 (1층코너 상가)(원룸 15개) (합16개) 월세 500만 ▶매가 8억3천
- 2) 산정동원바로앞(코너)1층상가(2개)원룸(12개) 4층(최고급주택)월세 550만 ▶매가 9억5천만
- 3) 월곡동시장 2분 (4층 원룸상가) (원룸12개,투룸2개)총 14개 (월수익 550만) ▶ 매가 8억5천만

주인직매 010-6670-9800

## 신축 건물 매매

월산동 3층 건물

월수익 900만

◆ 매가 : 22억 ◆  
(용 1억 보 1억4천)

- 1) 상무지구 6층 상가 월 수익 50만 ▶매가 8천만
- 2) 남구 진월동(4층 상가건물)▶매가 5억
- 3)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오피스텔 개발부지) 토지 53평 건물 222평(건축허가완료) 개발시 순수익 10억 ▶ 매가 9억

010-6670-9800

##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  |   |
|--|---|
| 1) 남구 주월동 (4층 상가주택) 토 71평 건 179평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4억5천                        | 5) 남구 진월동 (5층 상가주택) 토 73평 건161평 감정가 6억3천8백 → 최저 6억3천8백        |
| 2) 서구 화정동 (5층 상가빌딩) 토 125평, 건 460평 광주 새우리병원 앞 (코너) ▶감정가 13억2천 → 최저가13억2천     | 6) 북구 문흥동 (3층 원룸) 토 57평 건 101평 감정가 3억6천 → 최저가3억6천             |
| 3) 서구 쌍촌동 (3층상가주택) 토 90평, 건 107평 ▶감정가 6억 → 최저가 6억                            | 7) 북구 운암동 (2층 상가주택) 토 37평 건42평 (사강정보대 1분) 감정가 1억2천 → 최저가 1억2천 |
| 4) 화순 도곡면(무인텔) 토 3,289평, 건 3,278평 객실 32개(월수익 5,000만 예상) ▶감정가 37억 → 최저가 13억4천 | 8) 상무지구 세정마을(3층) 감정가 3억 → 최저가 2억4천                            |
|  | 9) 서구 내남동 (4층 상가주택) 감정가 5억3천 → 최저가 5억3천                       |
|  | 10) 북구 용봉동 (12층중상가) 감정가 6억7천 → 최저가 3억7천                       |
|  | 11) 남구 주월동 (마트) 토 108평 건 83평 감정가 14억6천 → 최저가 14억6천            |

| A.P.T                                      | 주택   | 토지,기타                                       |
|--|--|---|
| 1) 서구 용암동 우은아파트 (22평) 감정가 1억2천 → 최저가 1억2천  | 6) 북구 용봉동 (주택) 토지 33평 건물 17평 감정가 2억 → 최저가 1억2천     | 10) 광산구 하남동 (대지)106평 감정가 6억5천 → 최저 10억5천    |
| 2) 서구 내남동 배동공공아파트(22평) 감정가 1억2천 → 최저가 1억2천 | 7) 광산구 월곡동 (2층주택) 토지 222평 건물 73평 감정가 25억 → 최저가 25억 | 11) 북구 용암동 (토지) 1,000평 감정가 6억5천 → 최저 3억5천   |
| 3) 서구 화정동 대우아파트 (22평) 감정가 1억2천 → 최저가 1억2천  | 8) 남구 주월동 (주택) 토지 40평 건물 42평 감정가 1억 → 최저가 1억       | 12) 동구 용암동 (토지) 800평 감정가 1억2천5백 → 최저 1억2천5백 |
| 4) 광산구 쌍촌동 상가주택 (22평) 감정가 1억 → 최저가 1억      | 9) 북구 용암동 토지 37평 건물 26평 감정가 1억 → 최저가 1억            | 13) 동구 학동 (토지) 102평 감정가 1억2천5백 → 최저가 1억     |

010-7384-7800 010-6670-9800

## 경매 교육 (5월초 개강)

- 1) 기초실전반 (경매기초 + 기본실전)
- 2) 실전투자반 (기초 + 실전 - 매매까지)
- 3) 무료반영연 → (오전·오후)

기초이론부터 ~ 실전투자 리모델링,매매까지 (원스톱강의)

### 직원구함

1) 경매 배우면서 근무하실분  
2) 경매 컨설턴트로서 수익내실분  
평생회원 → 책상,컴퓨터,교육(무료제공)

010-6670-9800